

생과 사의 얽힘: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하데스」 장에 겹쳐진 생명 탄생의 길과 죽음의 길

강 서 정

I. 서론

본 연구는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 1922) 6장, 「하데스」(“Hades”)를 중심으로 생명 탄생의 길과 죽음의 길이 어떻게 함께 얽여있는지를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하데스」는 「써시」(“Circe”) 장을 예견하고, 블룸(Bloom)의 다양한 성격 측면과 사회관계, 소외와 고통, 따뜻한 심성을 드러낸다(Bell 364). 지금까지 「하데스」 장을 분석한 논문들은 주로 블룸이 죽음에 대해 보이는 태도 및 상실감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가 조이스의 삶과 죽음, 역사와 현실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하데스」를 산도와 죽음의 길이 겹쳐진 총체로, 즉, 죽음과 삶이 얽혀진 관도로 해석하는 논문은 거의 없었다. 기억 안에서 생과 사가 끊임없이 얽혀있음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조이스를 이해하는 데에 본 연구의 초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인공인 블룸의 독특한 세계관을 조망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맥을 짚어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데스」장은 블룸(Bloom)이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구 마차에 들어가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가 지나가는 길은 아일랜드 영웅들의 기념비와 평범한 사람들의 풍경이 함께 섞여 있다.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은, 아일랜드의 공적 역사, 종교의식, 전통문화를 만나는 것이며, 아일랜드 시민들의 일상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룸은 장례 마차를 타고 가며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동시에 삶의 활기와 생명의 잉태를 떠올린다. 장례 마차는 굴곡진 길을 지나가는데, 이 길은 블룸에게 생명체를 내보내는 산도이자, 다양한 생명체의 오고 감을 허용하는 혈관이기도 하다. 블룸은 장례 마차를 타고 길을 가는 동안 종교와 민족주의에 무겁게 짓눌려 마비된 더블린(Dublin)을 본다. 그리고 블룸의 아픔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동승자들과의 대화와 창밖 풍경은 아버지의 자살과 아들의 때 이른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이 하데스로의 심리적 여행을 통해 블룸은 죽은 자들을 만나고 아내 몰리(Molly)의 성적 활력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입힘으로써 삶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보통 남성이 공적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했다면, 여성은 재생산과 일상의 몫을 책임져 왔다(Martin 139). 여성은 대체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함께 해 왔다. 산도를 지키며 태어난 아이를 맞이하는 산파도 대개 여성이었고, 누군가 죽을 때 그 시신을 씻기고 돌보는 것도 여성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여성의 몫이다. 블룸이 차창 밖으로 보는 풍경과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아내의 성적 활력을 떠올리는 것은 이처럼 역사와 일상의 변주라 볼 수 있다. 역사도 일상도 기억을 남기기에 우리의 삶 안에는 생명과 죽음, 과거와 현재가 혼재해 있다.

조이스는 이처럼 장례를 위해 가는 죽음의 길을 의도적으로 여성의 산도와 겹쳐놓고 있다. 블룸의 의식 안에서 “극과 극은 통한다”(U 6.760)와 비슷한 뜻의 다른 표현들(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U 6.382)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블룸은 네 개의 수로

(canal)를 지나는데 이는 하데스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네 개의 강으로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동시에 상징한다.

여기에서 블룸은 죽음과 영생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의 극복과 영원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주검은 다른 생명체에게 거름이 됨으로써 물질적 순환을 이룰 뿐이다. 이 작품에서 죽음도, 시신도, 부활도 전혀 성스럽게 그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블룸에게는 구더기가 우글대는 죽음의 세계보다 따뜻한 여인의 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영원한 금속회환보다 금방 시들지만 화려하게 핀 생화를 선호한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은 허구일 뿐이다. 무덤에 시신을 묻는 순간, 망각이 시작된다(U 6.872). 이 망각을 잊기 위한 방식으로 나오는 죽음기와 사진에 대한 언급은(U 6.962-69) 기독교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해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작가 조이스는 블룸에게 일정한 거리를 둔다. 블룸은 죽고 나면 망각이 일어날 것이라 여기지만, 그는 끊임없이 아들과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린다. 그는 마차에서, 성당에서, 장지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상처받지만, 그것에 맞서기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데스」 장의 마지막 문장 “오늘 아침이 얼마나 근사한가”(U 6.1033)는 실제 기분이 좋은 것이라기보다 이방인으로서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는 태도이다.

비웃을 입은 남성에게 대한 언급은 블룸의 생각에 대한 조이스의 이견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물질의 순환으로 설명될 수 없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이스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서로 겹쳐져 있기에 우리는 삶 안에서 기억과 일상을 통해 죽음과 생명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하데스로 향하는 길은 생명의 길과 맞닿아 있다. 마지막에 묘지에서 밖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하나로 뒤엉켜 공적 역사와 사적 기억이 어우러진다.

본 논문은 위의 논지로 조이스가 어떻게 「하데스」 장에서 산도와 죽음

의 길이 얽혀있음을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드러나는 블룸의 생과 사에 대한 관점을 소개한 후 작가 조이스가 블룸에 대해 견지하는 거리와 그에 대한 관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로써 블룸의 트라우마를 조명하고, 그가 견지하는 물질적인 순환에 대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데스」장에 곁질된 생과 사의 얽힘을 읽어내는 것은 『율리시스』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II. 작품 속 삶과 죽음이 만나는 길의 이미지와 상징

「하데스」장은 블룸과 그 일행이 마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장례 마차라는 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장례식이 있을 종착지에 도착하면 다시 그 구멍을 통해 나올 것을 전제한다. 이 마차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차가 지나는 길은 우리가 여인의 자궁에서 나오는 탄생의 과정을 상징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인생의 길을 가는 경주(race)를 의미하기도 한다. 헨케(Suzette A. Henke) 역시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경주가 삶의 활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을 향한 경주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한다(101).

블룸은 마차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중 제일 먼저 노파에 주목한다. 노파는 죽음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블룸은 “출산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에 여성들이 사람의 죽음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다고”(U 6.14-15) 생각한다. 노파를 통해 출산과 죽음을 함께 연상하는 것이다. 이어 그는 여성이 시신을 씻기고 손톱 발톱을 깎아 봉투에 넣는 등 망자를 시중드는 행위가 “깨끗하지 않은”(U 6.20) 직업이라고 정의한다. 보통 재생산과 돌봄의 영역은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잉태와 출산, 보살핌의 몫이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영역을 담당함에도, 역사에서 여성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 장에서 유명한 아일랜드 정치가

의 기념비와 평범한 여성들이 함께 묘사되는 것은, 세상이 공적인 영역 덕분에 움직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여성들의 재생산을 향한 생명 활동 덕에 지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평범한 여성의 성적 활력은 인류를 유지해 온 동력이었음을 「하데스」 장은 재확인하고 있다.

마차 안의 빵부스러기(*crumbs*)를 발견하고 일행들은 그곳에서 성과 관련된 유희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U 6.95-99*). 그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은 다리를 올리는 행동이었다(*U 6.100*). 이들은 성과 관련된 것을 더럽다고(*unclean*) 여기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성적 활력과 관련하여 남성 위주의 세계가 내리는 판단이기도 하다. 블룸은 이 마차 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며 아내 몰리의 부정을 끊임없이 떠올린다. 그리고 마차에 들어설 때의 여성의 성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관점을 마지막에는 따뜻하고 활력 있는 삶의 정수로 재해석한다. 다시 말해 「하데스」 장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블룸의 깊은 명상을 담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성적 활력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장이라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생명의 근본인 물, 즉, 피의 순환을 담당하는 혈관으로서 역사를 품고 있는 길에 대해 명상한다. 이러한 혈관은 한편으로 생명체를 운반하는 산도와 연결된다.

시작부터 장례 마차는 죽음과 삶을 함께 담고 있는 세상 혹은 인생의 상징이다. 죽음 없이 삶이 없고, 삶 없이 죽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묵상은 삶에 대한 명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블룸은 아들을 잃고 나서 죽음의 상태(*impotence*)에 빠져 있고, 반면 몰리는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가톨릭 사회에서 평가하는 (아이를 낳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여성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거꾸로 가톨릭 신부를 여성과 동일 선상에서 그려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신부는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의식을 치름으로써 생명의 시작과 끝을 지키는 여성의 활동과 연결된다. 때문에, 그는 임신부처럼 배가 부른 상태이며, 곧 옆구리가 터질 것처럼 보인다(*U 6.597-98*). 이는 몰리가 루디(*Rudy*)를 잉태할 때 입었던 옆이 터진 속옷을(*U 6.80*) 상기시키며, 결과적으로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떠올리게 한다.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를 보며 블룸이 몰리의 임신을

떠올리는 것은 그의 의식 안에서 생과 사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블룸은 의식 속에서 백일해를 치료한다고 믿어 지는 가스를 언급한다(U 6.121). 이 가스는 나중에 (가톨릭 신부의 배가 부른 원인으로 상상된) 시체가 내뿜는 가스와 연결되고(U 6.606), 때때로 이 가스를 빼내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U 6.609-12) 생명잉태 및 출산에 비유된다. 이렇듯 가스는 「하데스」 장에서 치유와 죽음, 출산과 연결되는 중요한 상징어 역할을 한다.

또 주목해야 할 어휘는 “chance”와 “change”이다. 몰리는 창밖에서 개가 교미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루디를 잉태한다(U 6.77-81). 루디의 탄생과 때 이른 죽음은 신의 섭리가 아닌, 자연의 우연(chance) 때문이었다(U 6.77). “chance”는 이처럼 생명의 잉태와 죽음을 이끄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의 힘은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다양한 형태로 변화케(change) 한다. “마치 아이의 엉덩이처럼”(U 6.138) 물은 빗방울도 되고 강물도 되며, 땅에 스미어 부패를 돕는 축축한 진흙이 되기도 한다. 세상을 이루는 기본 네 요소 중 하나로서 물은 본질은 같지만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과거와 시간, 기억을 담은 채로 유유히 흘러간다. 작품은 마차가 지나가는 길 풍경을 물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하여 마치 혈관을 지나는 혈액처럼, 혹은 양수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는 정원의 이미지이다. 제일 먼저 성녀 소화 데레사가 언급되는데(Little Flower), 소화 데레사는 자신을 하느님의 정원에 있는 작은 꽃이라 생각하였고, 하나의 작은 꽃으로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단명한 그녀는 헨리 플라워(Henry Flower), 즉 블룸의 아들 루디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 성녀의 존재는 아일랜드 역사 속에서 (이름난 정치가들에 대비되는) 평범한 인물들을 상기시킨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도 자신의 존재함 자체로 세상을 지탱한 평범한 사람들은 공동묘지의 “잠의 꽃”(U 6.769)으로 누워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와 살을 내어주어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하며, 그 생명의 에너지

를 무덤 안에 가득 담고 임신부와 같이 불룩한 봉분을 올리고 있다. 작품에서 묘지기를 “gardener”(U 6.934)로 표시하는 것도 생과 사가 묘지 안에 얽혀있음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논리에서 「하데스」 장은 생명 탄생과 죽음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즉, 잉태하고 출산하며 죽고, 죽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잡한 혈관으로(길로) 인식한다. 이 작품에서 왜 물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물(피)은 순환하고 혈관을 돌면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심장의 펌프질이 멈출 때 물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과 삶의 길은 막히거나 뚫린 하나의 길이 아니다. 마치 흙에 스며든 물처럼 기억과 생명은 죽음 안에 흘러 들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삶과 죽음의 세계를 구별하여 주는 것이 구멍이다. 흔히 「하데스」 장에서 살아있는 자는 구멍이 열려 있고, 죽은 자는 구멍을 막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도 연관된다. 마차가 빠르게 달려 회전을 할 때 디그넬의 시신이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블룸은 디그넬의 입이 열려 있는 모습을 떠올린다(U 6.423). 그리고 죽은 자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U 6.424). 마치 삶 안에 죽음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현재 안에 과거의 기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다(Hepburn 192). 이는 블룸이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자살과 어린 루디의 죽음 때문이다. 「하데스」 장 전체에서 블룸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린다.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현장을 감시하는 장면, 명예롭지 않고 수치심마저 주는 자살,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각에 스며드는 고통과 괴로움은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보다도 더 뼈아프다.

이어 블룸은 정원과 구멍의 이미지를 종합하여 벌집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공동묘지에서 시신을 세운 채로 매장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묻을 수 있을 것이다(U 6.764). 이는 나무 등의 식물을 심거나, 농사를 위해 알곡을 땅속에 파묻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땅 사태가 난다면 여기저기 머리가 드러날 것이고 그 모습이 마치 벌집 같아 보일 것이다(U 6.766-67). 벌집에

여왕벌은 많은 유충을 낳고 일벌들이 유충에게 먹잇감을 물어다 준다. 이는 마치 시신 안에 들어찬 구더기를 상기시킨다(U 6.783). 시신을 먹는 구더기들을 블룸은 “해변의 소녀들”(U 6.784-85)로 비유하는데, 이러한 비유는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가 그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 1928)에서 표현한 “고등어 떼”(the mackerel crowd)를 떠올린다. 시적 화자는 예술이 숨 쉬는 영원의 나라 “비잔티움”으로 항해해 가지만 여전히 생동감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조이스는 거꾸로 죽음의 세계를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표현하며, 예술작품인 금속화환보다 생화가 시적이라고 말함으로써 확실하게 현실의 세계를 찬미하고 있다. 시신을 먹는 구더기들이 여성으로 표현된 점은 블룸이 모든 생명 탄생을 여성과 관련지어 사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우글거리는 구더기가 징그럽게 그려진 것은 인간이 죽어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일이 이승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구더기로 드러나는 인간 사후의 생명 순환보다 현세에서 여성에 의한 재생산 기능이 훨씬 매력적임을 표현한 것이다.

블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시신을 비료로 팔 것까지 연상한다(U 6.772-73). 시신은 그 양분으로 과일을 키울 것이고, 그 과일은 인간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는 일종의 카니발리즘(cannibalism)으로서 가톨릭의 미사 중 성체를 영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처럼 인간의 몸을 먹는 행위를 상상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을 영하는 의식을 철저히 물질적인 순환으로 환원하여 그 종교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사이몬스가 언급하듯 의도적으로 죽은 자와 가톨릭 종교의식에 불경스러움(irreverence)을 보이는 것이다(90).

죽음과 삶을 함께 통합한 존재가 있다. 우선, 루디를 잉태할 때 본 개는 탄생과 연결되는 반면, 아버지가 유언에 남긴 늙은 개, 아토스(Athos)는 죽음과 연결된다(U 6.125). 램슨은 이렇듯 개가 “죽음과 탄생, 상실과 사랑이 끊임없이 반복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257). 그러나 죽음 및 탄생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대상은 무엇보다도 무덤 관리인인 오코넬(John

O'Connell)이다. 오코넬은 우람한 체구에 여덟 명의 아이를 둔 사내로 등장한다. 그는 시신들이 누워있는 가운데, 무덤에서 생명을 잉태시킨다(U 6.756-60). 그가 들고 다니는 열쇠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열쇠인 동시에, 여성을 무장 해제시키는 열쇠이기도 하다(U 6.756). 「하데스」 장의 마지막에 공동묘지와 바깥세상을 연결하는 문이 열려 있음은, 생명과 죽음이 현실 세상에서 서로 엉켜있음을 의미한다.

생명 탄생과 죽음의 다양한 상징이 「하데스」에 나타나듯 블룸 일행의 장례 행렬에서 성적 이미지는 다양한 단어에 숨어 있다. 파워 씨(Mr. Power)와 관련해서 그가 “어떤 여성에게 스테이크(rumpsteak)를 갖다 주는 것을 목격했다.”(U 6.247-48)는 표현은 성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그 외 “축축한”(wet), “찢다”(tear), “지나가다”(passing), “문”(door) 등의 언어가 텍스트 내에서 1차 적 의미 외에 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떨어지는 빗방울(raindrop) 역시 성적 함의를 담은 단어이다. 또한 “die” 혹은 같은 발음을 지닌 “dye”는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적인 절정에 달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장례 미사가 있을 공동묘지 성당에 거의 도착했을 때 블룸 일행은 죽음을 떠올리는 늪을 지나(U 6.444) 석공의 조각품들, 살인사건이 있던 집을 지나가는데, 이때에도 물의 이미지가 등장한다(The high railings of Prospect rippled past their gaze. . . . white forms and fragments streaming by mutely U 6.486). 그는 또한 살인사건이 있던 집을 지나면서 “살해당한 사람의 눈에 비친 살해자의 이미지”(U 6.478)를 떠올린다. 이는 앞부분에서 “루디의 눈에 비친 블룸 자신의 모습”(U 6.76)을 상상하던 부분과 맞닿아, 죽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죽음의 이미지 바로 뒤에 블룸이 여자가 다 된(재생산의 기능이 있는) 딸 밀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U 6.483-85). 이처럼 「하데스」 장은 삶과 죽음의 엉켜있음을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로써 제시하고 있다. 구불구불한 길은 장례 의식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명체를 나르는(deliver) 생명의 길이기도 하다. 이 길은 하데스로 향하는 죽

음의 강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탄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III. 생과 사, 영원한 삶에 대한 블룸의 관점

산 자의 피는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한다. 그런데 블룸 일행을 태운 마차 는 길에서 두 번 서게 된다. 그중 한 번은 소 떼와 양 떼를 몰고 가는 이민 자 목동 때문이다(U 6.385-98). 이 소 떼들은 다음 날 도살당하기 위해 가 는 길이다(U 6.392). 흔히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상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로 양 떼를 몰고 가는 것과 달리, 「하데스」 장 의 목동은 도살하기 위해 소 떼를 인도한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 두 이미지가 완전히 상반된 것은 아니다. 소 떼는 영국인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영국인들의 몸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블룸이 생각하는 부활이란 물질의 순환으로서(U 6.780-81)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 거리가 멀다.

이어 블룸이 떠올리는 발명품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물질적 해석을 분명히 드러낸다. 블룸은 이 소 떼를 공원 입구에서부터 부두까지 실어 나를 트램(tram)은 물론, 시신 등 장례 행렬을 실을 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U 6.400-02). 소 떼가 영국인들의 양식이 되듯이, 시신 역시 비슷하게 다른 생명체의 양식이 될 것이다. 소 떼와 사람의 시신은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 다른 존재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블룸은 망자들(shadow)을 위해 을씨년스러운 조각상들을 세우느니 차라리 산 자를 위해 돈을 쓰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U 6.930-31). 그는 가톨릭의 장례 미사 역시 의미 없는 허례로 받아들이고(U 6.499), 시신 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 교회에 도착하여 마차 구멍에서 나온 관은 상여꾼에게 이끌려 다시 교회의 문(gate)을 지나간다(U 6.521). 이 문은 하 데스와 삶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 문을 통해 관을 나르는 것(delivery)은 곧 출산(delivery)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서부터 블룸은 지하(죽음)

의 세계와 따뜻한 여성의 품을 비교한다(U 6.553-1005). 사람이 죽으면 땅자를 위해 땅에 구멍을 낸다. 그 구멍으로 시신이 들어가고, 그 시신 위로 봉긋한 봉분이 올라가며, 시신은 그 자체로 땅속에 잉태된 구더기나 다른 생명체를 먹여 살릴 양분이 된다. 죽음의 길이 임신과 출산의 길로 연결된다. 하관하는 데에 쓰는 줄(coil)은 “땃줄”(U 6.914)로 표현된다. 죽음이란 여성의 품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변화이다. 여성의 품에서 생명을 잉태하듯, 지하에서 사체는 구더기와 쥐, 파리를 먹여 살린다(U 6.783-87, 980-94). 블룸에게 죽음 후의 세상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닌, 인간에서 다른 생명체로 형태를 바꾸는 물질의 순환 현상일 뿐이다(Henke 106). 따뜻한 여인의 품에 비해 지하의 들끓는 구더기들은 별로 반갑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 콘서트와 관련하여 블룸은 “한 편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곳에서 메꿀 수 있지요.”(U 6.218)라고 말하는데, 이는 한 물리적 존재가 다른 존재로 이행하는 물질의 순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블룸은 시신을 땅에 묻는 순간 망각이 시작된다고 말한다(U 6.872). 사신이나 죽음기가 없다면 죽은 자를 오래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U 6.962-69) 희화화하기도 한다. 금속화환보다 살아있는 꽃이 훨씬 매력적이다(U 6.947-48). 죽은 자를 기리는 조형물들도 별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생을 얻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종교는 말하지만, 블룸은 성심이란(The Sacred Heart) 예술작품으로 형상화되듯 추상적이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새를 가없이 여기는 밀리의 마음이라 생각한다(U 6.954). 어린 밀리가 아기새의 무덤에 놓은 “작은 화환과 체인”(U 6.953)은 살아있는 자의 뜨거운 심장과 죽은 생명체의 물질적 순환을 함께 상징한다.

블룸은 죽은 자의 장례를 물질의 순환과 관련하여 물, 불, 흙, 공기로 환원시키는 방식을 생각한다(U 6.980-94). 이렇게 죽음에서 새로운 물질로 돌아옴으로써 인간은 다시 세상에서 부활한다(U 6.995). 그러나 블룸은 벌레가 들끓는 지하보다 따뜻한 여인의 품이 훨씬 좋다(U 6.1005). 딱딱하고 차가운 종교 교리보다 물리의 성적 활기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아일랜드

의 민족주의와 정치적 영웅들보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좋다. 그는 열린 문으로 공동묘지에서 밖으로 나오지만, 그 문이 잠기는 것은 작품에 언급되지 않는다. 죽음의 문이 정말 잠길 것인지, 물처럼 다시 현실로 새어 나오지는 않을지, 공적, 사적 기억이 구멍을 막듯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작가 조이스는 독자에게 되묻고 있다.

IV. 블룸에 대한 작가의 거리와 평가

블룸은 「하데스」 장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무시와 따돌림을 받는다. 우선, 블룸이 미처 마차에 타기도 전에 마틴 커닝햄(Martin Cunningham)은 “모두 탔나?”(U 6.8)고 묻는다. 댄 도슨(Dan Dawson)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블룸이 연설문이 실린 신문지를 내밀지만 데덜러스 씨(Mr. Dedalus)에게 거절당한다(U 6.154-56). 루벤(Reuben)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마틴 커닝햄이 말을 가로채고(U 6.269-74), 존 헨리 맨튼(John Henry Manton)에게 모자가 찌그러졌다고 알려주며 호의를 베풀지만, 맨튼의 냉대를 받는다(U 6.1018-26). 그뿐만이 아니다. 장례 마차에서 일행들은 노골적으로 유태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빈정거리며(U 6.251), 파워 씨는 블룸 아내의 외도 가능성을 의식하고 이야기를 건네기도 한다(U 6.224). 또한, 블룸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파워 씨는 “자살이 최악이고”(U 6.335), “가족들에게 불명예를 주며”(U 6.338), “자살하는 자는 비겁한 사람이라”(U 6.341) 말함으로써 블룸을 가슴 아프게 한다.

그러나 블룸이 받는 냉대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들 루디의 죽음과 아버지의 자살에 대한 기억이다. 블룸은 작품에서 계속 루디를 떠올린다. 데덜러스 씨가 아들 친구를 욕할 때 어린 루디가 살아있다면 어떠할지와 그의 눈에 자신의 상이 맺혀있을 것을(“Me in his eyes.” U 6.76) 상상한다. 이는 이후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떠올리는 “살해당한 자의

눈에 비친 살인자의 이미지”(The murderer’s image in the eye of the murdered. U 6.478)와 연관된다. 루디의 죽음에 블룸의 책임은 전혀 없지만, 그는 아들의 죽음에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Lamson 258). 어린아이의 운구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블룸은 “아기가 건강하다면 엄마의 영향이고, 건강하지 않다면 아버지 탓이다”(U 6.329)라 함으로써 그 죄책감을 분명히 드러낸다. 또한, “사람들이 자살이나 유아살해(*infanticide*)에 전혀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U 345-46)고 떠올리는데, 이때 “유아살해”라는 단어는 그가 아들을 죽였다고(죽인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장은 블룸의 트라우마인 루디의 죽음과 아버지의 자살을 다루고 있다. 보통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아들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믿는 것이다(Henke 106). 부활을 믿지 않는 블룸에게는 그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갖는 것이었다. 이는 블룸이 아들 루디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앞서 언급한 파위의 자살에 대한 언급은 블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장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또 블룸은 어딘가에서 울리는 당나귀 소리를 들으며, 당나귀들이 “죽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모습은 누구도 볼 수 없다는”(U 6.837-38)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 “부끄러움”(shame)이라는 단어 뒤에 다시 연상되는 것이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점은 블룸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블룸은 모든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은 망각된다고 생각한다. 공적인 역사든 사적인 아픔이든 모든 것은 잊혀진다는 것이다. 블룸이 바라보는 풍경, 듣게 되는 이야기들, 나누는 대화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아픈 기억이 계속 의식에 떠오르지만, 그는 죽은 자는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블룸의 자기암시이기도 하다. 기억과 관련된 아픔이 그를 계속 괴롭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적인 역사가 잊히듯 망각이 찾아올 것이라 위안하는 것이다. 램슨은 이 「하데스」장에서 블룸

이 자신의 아픔을 직면한 후 그 결과로서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낀다고 언급하지만(257), 블룸은 실상 이 장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블룸은 자신의 아픔을 직면할 용기가 아직 없다. 그는 일행들이 자살에 대해 언급할 때 화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냉대해도 그 부당함에 항의하지 않는다. 그의 아내를 “madame”이라 칭하며 (오페라의 내용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파워에게 그게 무슨 의미냐며 캐묻는 대신, “예의상 말한 것이겠지.”(U 6.244)라고 스스로 위안한다. 이와 같은 위안은 블룸이 “madame”이라는 호칭에 다른 의미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블룸의 호의를 차갑게 응수하는 맨튼에 대해 그는 언젠가 맨튼이 자신에게 미안해할 것이며, 결국 그런 상황은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이라(U 6.1031-32) 혼자 생각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망, 맨튼의 성격과 블룸에 대한 그의 평가를 염두에 둘 때 맨튼이 블룸에게 미안해할 것 같지는 않다. 그에게 장례를 위한 이동 과정과 장례 의식, 지인과의 대화는 이방인으로서의 서러움을 각인시키지만, “오늘 아침, 기분이 참으로 좋군.”(U 6.1033)이라는 표현은 그의 회피 기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조이스는 이처럼 블룸의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고통 회피와 모순을 그대로 노출한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블룸의 고통에 대한 태도에 머물지 않는다. 조이스는 블룸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블룸은 죽음을 물질의 순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 죽음 후의 삶은 가톨릭에서 약속하는 완전한 신체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단지 시신에서 구더기나 쥐, 식물의 양분이 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순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죽음에 어떤 신비나 신기한 현상도 개입되지 않는다. 죽음 현상은 심장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고, 죽고 나서는 다른 생명체에게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물질 일부가 된다.

이러한 블룸의 물리적 사고를 깨는 작가의 시도는 의외의 방법으로 실행된다. 블룸이 인지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인물, 비웃을 입을 사내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그가 작가 제임스 조이스 자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Simons 95), 블룸이 가진 물질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블룸은 디그넬의 산소에 서 있는 인물 중 비웃을 입을 사내를 발견하며 그가 누구일지 매우 궁금해한다(U 6.805-07). 그러면서 “항상 상상도 못 했던 인물이 나타나곤 하지”(U 6.807)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과학적 세계관의 한계를 인정한다. 우리 삶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즉, 신비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블룸의 “매킨토시를 입고 있어”(U 6.894)라는 말을 “그의 이름은 매킨토시야.”(U 6.895)로 알아듣고 기록하는 하인즈(Hynes)의 모습은, 우리의 불완전한 인지가 기록을 통해 영구화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아직 매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비웃을 입을 사내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다. 그는 끝까지 작품에서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그리고 조이스는 이를 통해 블룸의 삶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작가 조이스는 블룸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의 모순이나 한계를 그대로 노출 시킨다. 이러한 조이스의 글쓰기 방식은 우리를 블룸과 동일시하게 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게 한다. 이렇게 독자는 블룸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도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작품에서 한없이 따뜻하고 선한 블룸의 모습을, 그의 아픔과 세상의 가혹함을 마주하게 된다. 또 블룸이 그의 고통을 자신의 의식 안에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내를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보게 된다. 이를 통해 블룸 자신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V. 결론

지금까지 조이스가 「하데스」장에서 어떻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겹쳐놓았는지(overlap)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드러나는 블룸의 생과 사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작가 조이스가 블룸에 대해 견지하는 거리와 그에 대한 관점을 논증하였다.

블룸은 「하데스」장에서 아내 몰리와 보일런의 만남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로 인해 디그넘의 장례식 행렬에 참석하면서도 몰리의 성적 활력을 생각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여기에서 블룸은 아들 루디가 죽은 뒤 성적 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신과 생명력이 생동하는 아내를 비교한다. 블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여성의 성과 돌봄의 역할을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재평가함으로써 아내의 생명력을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블룸이 길에서 보게 되는 역사의 흔적과 전통적인 장례 의식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의 성적 활력과 비교할 때 이미 죽은 것에 대한 기억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아일랜드의 공적 역사와 가톨릭 신앙은 죽은 상태에 가깝다.

이런 맥락에서 블룸은 생명 활동과 죽음의 현상을 비교한다. 또한, 작가 조이스는 블룸의 의식을 따라가면서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함께 섞어 놓고 있다. 죽음은 아무리 미화되어도 약동하는 생명력에 비하면 매력적이지 않다. 디그넘의 시신은 “피가 흐르지 않고 굳어져 있으며 죽은 생선처럼”(U 6.520) 보인다. 또한, 죽음 후의 세상도 육신과 영혼의 부활과 거리가 멀다. 여성의 성이 생명을 잉태한다면, 죽은 육신은 거름이 되어 식물, 구더기, 쥐, 파리를 키울 것이다. 시신은 다른 생명을 먹여 키우겠지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여인의 품과 비교할 때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무덤 속은 전혀 시적이지 않다. 영원히 기억된다고 여겨지는 역사와 가톨릭 신앙으로 전승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블룸에게 억지스럽게만 보인다. 그는 공적인 역사 속 인물도, 가까운 지인도, 매장하는 순간 당

각된다고 믿는다. 기념비나 석공의 작품은 거꾸로 그런 장치들이 없다면 망자가 잊혀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블룸은 의식 안에서 계속 기억과 관련된 생과 사의 얽힘을 보여주고 있고, 작가 조이스는 블룸과 일정한 거리를 둬으로써 생과 사의 기억이 구멍을 틀어막듯 단절되는 것이 아님을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낸다.

다른 일행들은 아일랜드의 전통인 장례 의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블룸은 죽음의 세계에 대한 미화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공격한다. 인간은 어머니의 젖처럼 시신의 “치즈”(U 6.982)로 다른 생명체를 키운다. 이로써 그 생명체의 일부로 변화한다. 이것은 몸과 영혼을 갖춘 미래의 부활과 전혀 다른, 물질의 순환이다.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강요하는 기념비는 무의미하며, 현재 살아있음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인들의 재생산 활동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블룸은 여성이 생명과 죽음의 현장을 지키는 것을 “깨끗하지 못한 일”(U 6.20)이라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여성의 성적 생명력이 따뜻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재평가한다. 누구나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팔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물어주어야 하듯이”(U 6.808-09) 여성의 성적 활력이 없다면 누구도 세상에 나올 수 없다. 편협한 여성관과 민족주의, 가톨릭 신앙에 마비된 아일랜드 사람들 속에서 블룸은 상처받고 소외되지만,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는다. 마음이 따뜻한 마틴 커닝햄 역시 블룸에게 무례할 때가 있지만, 블룸은 주위의 동물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준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블룸이 여성의 성적 활력을 재평가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새롭게 해석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고, 죽은 자와 관련된 기억과 망각에 대해 스스로 모순을 보이기 때문이다. 블룸은 끊임없이 아들 루디와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망각된다고 자기암시를 한다. 그는 자신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항의하거나 어떤 의미로 말

하는지를 추궁하지 않고, 무례한 맨튼의 언동에 대해 “그가 언젠가 미안해할 것이다”(U 6.1031-32)라고 덮어 버린다. 이러한 블룸의 모순과 회피를 작가 조이스는 블룸의 혼란한 사고 과정과 현실 속 인물들의 대화를 함께 배열함으로써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블룸이 파악하지 못하는 “비웃 입은 사내”를 묘지에 등장시킴으로써 블룸의 과학적 사고가 정확한 것은 아님을,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신비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블룸의 세계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조이스의 『율리시스』 중 「하데스」는 작품의 전체 배경 및 주제, 인물 갈등의 핵심, 그리고 갈등의 극복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대)

인용문헌

- Bell, Robert H. “‘Preparatory to Anything Else’: Introduction to Joyce’s ‘Hades’.”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24, no. 3/4, 2001, pp. 364-499.
- Henke, Suzette A. *Joyce’s Moraculous Sindbook: A Study of Ulysses*. Ohio State UP, 1977.
- Hepburn, Allen. “The Irish Way of Dying: *Ulysses* and Funeral Processions.” *The Canadian Journal of Irish Studies*, vol. 38, no. 1/2, 2014, pp. 184-207.
- Joyce, James.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Random House, 1986.
- Lamson, Brandon. “Images of Psychic Descent in ‘Hades’ and ‘Circe’.” *Joyce Studies Annual*, 2010, pp. 255-62.
- Martin, Timothy. “Elegiac *Ulysses*.” *Joyce Studies Annual*, 2016, pp. 130-52.
- Simons, Jefferey. “Leopold Bloom on Death.” *Joyce Studies Annual*, 2018, pp. 86-107.

Abstract

The Overlapping of Life and Death: A Path to Death and the Birth Canal in the “Hades” Chapter of Joyce’s *Ulysses*

Seojung Ka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 path to death overlaps with the imagery of the birth canal in “Hades” of the sixth chapter of James Joyce’s *Ulysses*. “Hades” begins with Bloom riding in a carriage to attend Dignam’s funeral. On the way to the church where the funeral will be held, he considers the vitality of life and its beginnings along with his thoughts on death. The carriage passes along a curved road, that is symbolically integrated with the birth canal. Women have usually been considered to be the agents of reproduction, while the role of males takes place in public areas. During his journey Bloom reevaluates women’s reproductive role as a valuable expression of vitality, although in Ireland generally women’s work is considered to be “unclean.” In this way, Joyce demonstrates that we are experiencing life and death together through memory and in daily life, as the road to death is closely connected to the way to birth.

■ Key words : “Hades,” death, life, reproduction, history, rebirth

(「하데스」, 죽음, 삶, 재생산, 역사, 부활)

논문접수: 2022년 11월 14일

논문심사: 2022년 11월 15일

게재확정: 2022년 12월 10일